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제16차 세계병자의 날” 행사 개최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주최하고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주관하는 ‘제16차 세계병자의 날’ 행사가 2008년 2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대구가톨릭대학병원 7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국의 가톨릭계 병원과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병원 및 10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을 초대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보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1부 기념식에서는 교황청 담화문과 축사를 시작으로

환우 체험 수기 당선자 시상식과 발표가 이어졌으며, 모범 의료인 시상과 활동 동영상을 관람하였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최영수(요한) 대주교는 교황청 담화문 발표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제16차 세계병자의 날’ 담화문에서 첫째, 치유자이신 예수님과 성모님 두 분의 관계와, 둘째, 성체성사의 신비와 구원 계획에서의 성모님의 역할 그리고 셋째, 치유 사도직에 있어서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전하며, “환우들과 고통 받는 이들의 쾌유를 빌고 우리 모두를 고귀한 의료직과 치유 사도직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인과 의료 봉사자 여러분들께 그동



안의 노고에 치하 드린다”고 축사를 했다.

환우 체험 수기 최우수상에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란 제목의 수기를 제출한 문혜란(아네스) 씨가 영광을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김미(아가다) 씨가, 장려상에는 고의환(시몬) 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세강병원 이규인(산부인과) 원장이 모범 의료인으로 선정되었다.

2부에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보건사목 담당 김운회(루카) 주교, 천주교 대구대교구 조환길(타대오) 보좌주교와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기념미사가 봉헌되었다.

김운회 주교는 강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치유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어라’고 명하셨다(루카 9,1-2).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복음 선포와 함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영적·육체적 치유에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진정한 의술은 환자의 육체적 질병 치유와 함께 내적 치유, 나아가 환자의 영적 치유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가 환자를 만날 때 지식과 의술도 중요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이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낌없는 사랑으로 환자를 보살펴야 하겠다.”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세계병자의 날 개최 의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제정하신 ‘세계병자의 날’은 성모 마리아께서 프랑스의 ‘루르드’라는 시골 마을의 한 소녀(벨라뎃다)에게 나타나시어 ‘치유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알려준 것을 기념하고 더욱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치유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 교황님의 뜻에 따라 전 세계 환우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기원함
-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인과 봉사자들이 더욱 큰 보람과 사명감으로 환우들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함
- 가톨릭계 병원과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보다 나은 의료와 치유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